

[서식 예] 답변서(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변제기 도래 항변)

##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소외 □□□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상 소외 □□□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을 대위하여 위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4조 제2항 참조)
3. 그런데 소외 □□□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변제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원고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아직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입  
니다.[갑제1,2호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보증계약서 참조]

4. 따라서 원고는 소외 □□□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을제1호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 1. 을제2호증 | 보증계약서     |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제 출 법 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 출 부 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분 제출
답 변 서 의 제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분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li> <li>·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li> </ul>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고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p>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li> <li>·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li> <li>· 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li> <li>·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li> <li>·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li> </ul>